

포토뉴스



영등포구, 의료인단체 통합돌봄지원사업 협약

서울 영등포구가 지난 29일 구청에서 '영등포구-의료인단체 통합돌봄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업무협약에 참석한 조유진 구청장(왼쪽)과 의료인단체 대표(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오산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와 간담회

경기 오산시는 민선9기 출범을 맞아 지난 28일 시청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와 상간례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간담회에서 조용호 시장(가운데)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경기 이천시가 지난 29일 제67(2027~2030년)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보고회에 참석한 성수석 시장(가운데)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인천 미추홀구, 하나은행 인화대지점 기부금 전달 받아

인천 미추홀구가 30일 구청상에서 하나은행 인화대지점으로부터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 300만원 전달받았다. 사진은 기록식에서 김경식 구청장(가운데)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청렴은 공직자와 구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성동구, 신뢰 받는 행정 구현 청렴콘서트 개최

유보하 구청장-새내기 직원 청렴징표 전달식도

서울 성동구(구청장 유보하)가 최근 구민과 직원이 함께 반부패의지를 다지는 '2026년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반부패 청렴성동으로의 도약을 다짐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자치 막막할 수 있는 청렴 제도를 문화·예술 콘텐츠로 풀어내 즐겁게 배우는 자리로, 구민과 직원 등 77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은 순서는 구청장과 청렴새내기(2026년 신규 임용자) 간의 청렴징표 전달식이었다.

구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렴새내기 직원들은 전 직원의 다짐을 담아 '민선 9기 청렴성동으로의 도약'이라는 문구가 적힌 '청렴특자'를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유보하 구청장은 34년간의 공직 경험과 철학을 담아 직접 서술한 청렴 지침서 '청렴심서'를 직원들에게 전하며 화답했다.

교육 후 만족도 조사에서는 98.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직원들은 일반방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공연과 참여형 퀴즈가 결합된 몰입도 높은 교육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구민은 “구청장과 새내기 직원들 간의 청렴징표 전달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성동구의 구청원으로서 청렴성동을 향한 발걸음에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유보하 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와 구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라며 “이번 콘서트에서 확인한 직원들의 의지와 구민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성동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소진 기자 zin@siminlibo.co.kr



콘서트에서 유보하 구청장(왼쪽)이 청렴새내기 직원들과 '청렴징표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들 미래세대와 유쾌한 소통·화합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1·3세대 어울림한마당 행사

학생 61명에 장학금 전달식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9일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가 청춘주간보 호선사에서 '1·3세대 어울림한마당' 및 장학금 전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업에 성실히 임하는 학생 6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노인들의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

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장학사업과 보건복지부 지원 '1·3세대 공감사업'을 연계해 장학금 전달과 세대 공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학생과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행사에는 김원기 시장을 비롯해 박지현 국회의원, 유수연 경기도의원, 민미선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임현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회장 등 주요 내빈과 장영생, 학부고, 경량노인,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사장 전달에 이어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수여됐으며, 참석자들은 장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장학금 전달식 이후에는 1·3세대 어울림 한마당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조순가족팀을 구성해 투호 만들기과 율놀이 등 공동 미션을 수행하며 소통과 협력의 시간을 보냈다. 이어 시나몬스틱 화분 만들기 체험과 CRC봉사단 공연, 시 낭송, 작품 전시, 이마를 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세대 간 공감과 화합의 분위기를 높였다.

민정호 기자 mjh@siminlibo.co.kr

성북구 길음1동 지시협, 홀몸노인 생일날 지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켜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길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6년부터 10년 넘게 '홀몸노인 생일날 행복만들기' 사업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홀몸노인 생일날 행복만들기'는 가족의 돌봄이 부족한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생일을 맞이한 노인 2명을 선정해 케이크와 축하 선물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길음1동 특화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생신 축하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노인들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고립을 예방하며,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성북제일새마을금고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이끌고 있으며, 푸레쥬로 길음뉴타운에서도 매월 생일 케이크를 무상 지원하며 노인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고 있다.

김종건 길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후원과 협치의 위원들의 정성이 모여 노인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온정 넘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원규 길음1동장은 “노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이웃의 관심 어린 관심과 안부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서로를 살피고 정을 나누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원호 기자 mmh@siminlibo.co.kr

7일 '의학의 역사' 의사 작가 강연

도봉구 학마을도서관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 학마을도서관은 오는 8월1일(일) 저녁 7시30분 '의학의 역사' 강연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역사 속 질병과 의학의 발전이 인류와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역사와 과학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을 맡은 이나준 작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지닌 웹소설 '중증의 산타'의 작가로, '의사'라는 단어가 갖는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의학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구는 이번 강연이 베스트셀러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지역내 독서문화 확산과 독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원호 기자 mmh@siminlibo.co.kr

여름밤, 일상 속 문화예술을 만나다

인천 강화군, 10월까지 문화 공연

인천 강화군은 8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관광명소에서 매주 토요일 소규모 문화공연 '섬:프레스(Island)'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섬:프레스(Island)'는 '섬'과 '프레스'의 결합으로, '강화에서 즐기는 맑고 진한 문화 한 잔'을 의미하는 버섯집 형식의 문화공연이다.

군은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주요 명소에서 군민과 방문객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

8월 공연은 여름밤 많은 휴가객

이 찾는 동막해변, 천문과학관, 민머루해변에서 진행된다.

1일과 8일에는 동막해변에서 오후 6~8시, 15일에는 천문과학관에서 오후 7~8시, 22일과 29일에는 민머루해변에서 오후 7~8시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는 대중음악, 재즈, 어쿠스틱, 퓨제라, 색소폰 연주, 탭, 뮤지컬 갈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팀이 참여해 강화의 여름밤을 더 재밌게 채울 예정이다.

군은 음악을 통해 군민과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고, 강화만의 문화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문원호 기자 mcs@siminlibo.co.kr

경남도립미술관, 11월 소장품 전시

내달 3회 연구 프로그램 운영

경남도립미술관은 오는 11월 소장품 7점 전시를 위한 '의미'라는 주제로 열리는 '집단'이다.

8월 12·22·29일 총 3회에 걸쳐 소장품의 수집·분류·활용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경남 미술과 동시대적 관점에서 새로운 소장품의 의미를 살펴본다.

마지막 회에서는 메타볼릭 뮤지엄의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당일 잔여 좌석 유무에 따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자원으로 바라본다. 도립미술관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와 함께 소장품 연구를 확장하는 실천을 이어가고자 한다.

연구프로그램의 시작은 열여덟 작품에 녹아있는 '의미'라는 주제로 열리는 '집단'이다.

8월 12·22·29일 총 3회에 걸쳐 소장품의 수집·분류·활용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경남 미술과 동시대적 관점에서 새로운 소장품의 의미를 살펴본다.

마지막 회에서는 메타볼릭 뮤지엄의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당일 잔여 좌석 유무에 따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창원=김정영 기자 kjk@siminlibo.co.kr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 허브 IFEZ

**글로벌 항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IFEZ**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

INCHEON

글로벌비즈니스
혁신 허브
IFEZ